

- 주요 뉴스: ECB 주요 인사들, 6월 정책금리 인하에 무게. 이후 경로는 불확실
 - 엘런 美 재무장관, G7 재무장관들에 러 동결자산 수익 활용 동의를 촉구할 예정
 - 보먼 연준 이사, 필요 시 정책금리를 인상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
 - 주요국, 이스라엘의 라파에 대한 대규모 지상 작전에 반대 입장을 표명
- 국제금융시장: 견조한 경제지표 속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지표 혼조
 주가 상승[+0.12%], 달러화 보합[+0.03%], 금리 상승[+4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에너지 업종 중심으로 0.12% 상승
 유로 Stoxx600지수는 ECB 정책금리 전망의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 영향으로 보합
 유로화는 0.02% 상승, 엔화는 0.17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가 소폭 후퇴하며 4bp 상승
 독일 및 영국 국채금리는 각각 6bp, 5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,351.5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,358.8원, 0.08% 하락), 한국 CDS 약보합

		5/17일	5/16일	전일대비			5/17일	5/1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303.3	5,297.1	0.12%	국채 금리 10y	미국	4.42%	4.38%	4bp
	유럽	522.94	523.62	-0.13%		독일	2.52%	2.46%	6bp
	중국	3154.0	3122.4	1.01%		영국	4.13%	4.08%	5bp
	일본	38,787	38,920	-0.34%	CDS 5y	한국	34.0	34.1	0bp
	한국	2,724.6	2,753.0	-1.03%		중국	59.6	59.3	1bp
환율	달러지수	104.5	104.5	0.03%	위험 지표	EMBI+	-	288.0	-
	유로화	1.0869	1.0867	0.02%		VIX	18.7	18.0	-3.46%
	엔화	155.65	155.39	-0.17%		WTI유	83.1	82.7	1.05%
	위안화	7.2243	7.2214	-0.04%	원자재	구리	449.8	443.7	3.37%
	원화	1,354.9	1,345.0	-0.74%		금	2,391.9	2,379.0	1.6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ECB 주요 인사들, 6월 정책금리 인하에 무게. 이후 경로는 불확실

-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2%에 근접함에 따라 6월 ECB의 금리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, 투자자들은 올해 말까지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
- ECB의 주요 정책 입안자들은 6월 인하 전망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지속. 잠재적인 충격 요인, 특히 지정학적 위험이 컨센서스에서 벗어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
- 보스티안 바슬레 정책위원은 노동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이 과도하지 않고, 인플레이션 결과도 기대에 부합한다고 설명.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충격이 없는 한 6월 금리 인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. 다만, 그 이후 경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
- 슈나벨 이사는 Nikkei와의 인터뷰에서 ECB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연달아 금리를 인하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성급한 정책 완화가 내포한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엘런 美 재무장관, G7 재무장관들에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 활용 동의를 촉구할 예정

- 美 재무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, 엘런 장관은 6월 G7 정상회의에 앞서 다음주 G7 재무장관들을 만나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(연간 \$50억)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에 동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
-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채권 발행, 대출 등에 소요되는 \$500억에 러시아 동결자산의 이자 수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 제기. G7 재무장관들은 동 제안에 대해 아직까지 신중한 반응
- 일본 재무장관은 러 동결자산 활용을 위한 모든 제안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. 또 다른 관계자는 G7 재무장관들이 이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각국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고 설명

■ 보먼 연준 이사, 필요 시 정책금리를 인상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

- 보먼 연준 이사는 정책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, 올해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았고 향후 물가 둔화 속도가 더디거나 반등한다면 금리를 인상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

■ 주요국, 이스라엘의 라파에 대한 대규모 지상 작전에 반대 입장을 표명

- G7(미국 제외) 등 13개국 외무부 장관은 이스라엘 외무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라파에 대한 전면적 군사 작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
- 한편 미국 백악관도 이스라엘의 라파에 대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. 아울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가자지구 전쟁, 인질 석방,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

■ 중국 인민은행, 부동산 위기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

- 중국 인민은행은 자국 은행들이 국유기업에 미분양 주택 매입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. 타오 부총재는 3,000억위안의 중앙은행 자금으로 5,000억위안의 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■ 러시아, 1분기 GDP 성장률(속보치) 전년동기 대비 5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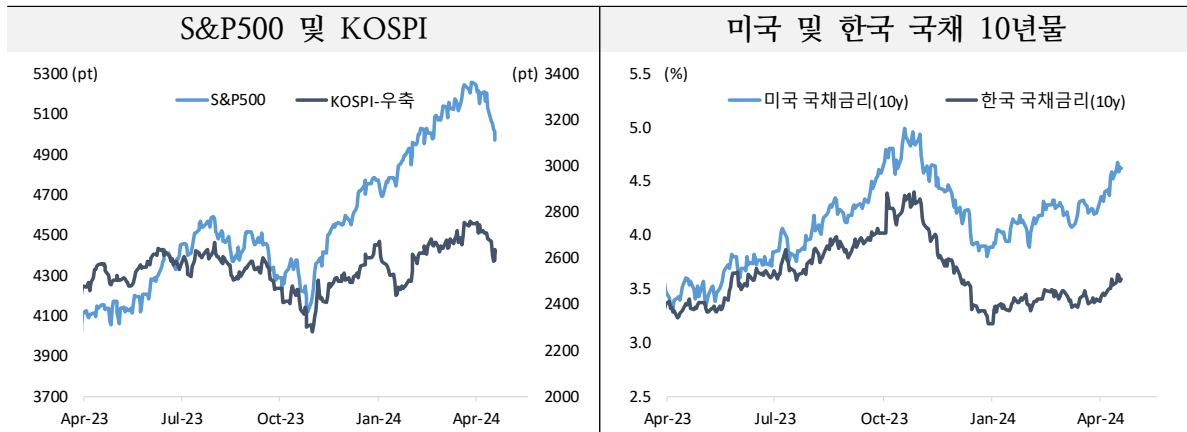
- 러시아의 '24년 1분기 GDP는 전년동기 대비 5.4%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(5.3%)를 소폭 상회했으며, '23.4분기 4.9% 대비 가속
-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러시아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.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무기, 탄약 등 전쟁을 위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. 방위 산업은 수익성이 거의 없고, 러시아인들의 생활 수준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

주요 경제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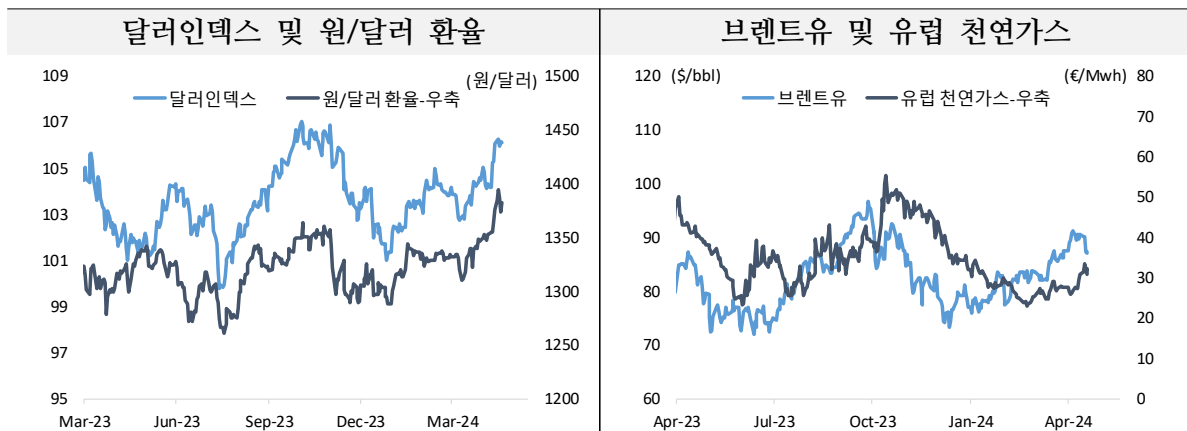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주요 인사(파월 의장, 바 감독부위원장, 윌러 및 제퍼슨 이사) 연설(5/19~20일)
- 4월 소비자물가 캐나다(5/21일), 영국(5/22일)
- 5월 FOMC 의사록 공개(5/22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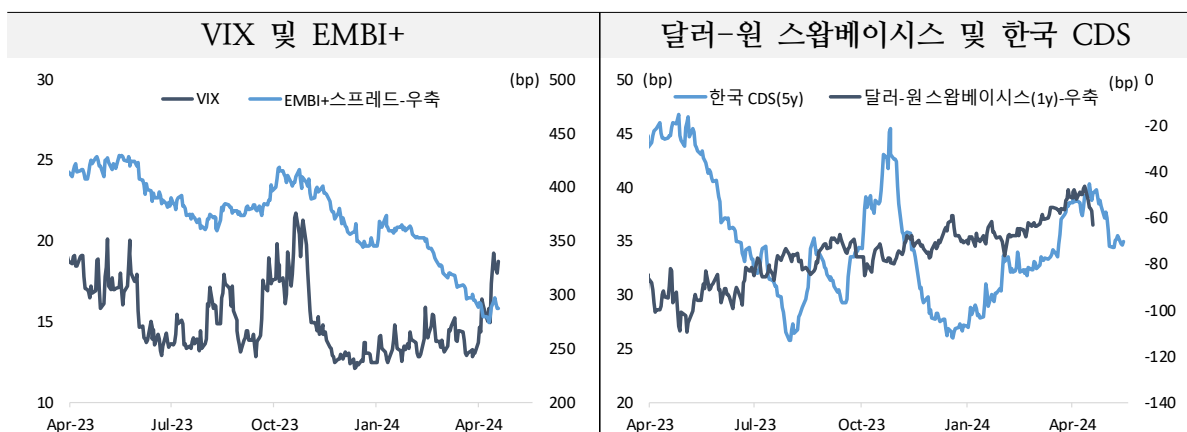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56, E-mail wjhwang@kcif.or.kr